



아이들 더 크게 사랑하는 법
요소 라즈니쉬 지음 / 손민규 옮김
지혜의 나무 / 9천8백원

부모-자녀간
마음의 벽
명상하며 허물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다. 하지만 때때로 '내 아이만큼 최고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욕심이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나 억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의무만 앞선 탓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식사랑'은 자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세계적인 명상지도자 요소 라즈니쉬가 전하는 '아이들 더 크게 사랑하는 법' 역시 자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아이의 순수함을 함부로 짓밟지 마라', '안되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라고 말하라', '아이를 사랑하되 지배받지는 마라', '아이가 틀리면 진실하게 대답하라'... 결국 자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것이다. 라즈니쉬는 '낯선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아이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며 '내 아이에게 지식이나 사회적 성공을 바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흠뻑 빠져들게 할 때 삶의 행복과 자유가 찾아온다'고 강조한다.

'부모와 아이를 위한 명상'이란 부제가 붙은 <아이들 더 크게 사랑하는 법>은,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학교에 다닐 때까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자녀와의 대화법', '성격교정기', '부모의 역할' 등의 주제를 문답형식으로 풀어 놓은 이 책은 '육아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다른 실용서와 구분되는 점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명상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라즈니쉬는 아이가 14살이 되면 명상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라고 말한다. 이 때는 명상을 하기 전 15분 정도 춤을 추거나 뛰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이후 5분 동안은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이 밖에 '긴장풀기', '웃음명상', '자공으로 돌아가기'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천함으로써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명상법을 소개한다.

여수령 기자

변호사가 쓴 '부처님 원음'

아함경 번역한 이상규 변호사



전해오는 부처의 가르침 1·2
이상규 엮음
해조음 / 각 1만2천원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에만 반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꾸밈없고 진솔한 부처님 원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아함경>을 우리말로 풀이한 <전해오는 부처의 가르침> 1, 2권을 펴낸 이상규 변호사, 세종합법률사무소 대표. 이 대표는 1952년 스무 살의 나이로 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법제처 법제과와 문교부 차관, 고려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법조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런 그가 회갑을 넘기면서 '세속의 법'에서 '부처님 법'으로 관심을 옮겼고, 최근 6권에 달하는 <아함경>의 번역을 마친 것이다.

"10여년 전만해도 초기경전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니다. 번역되어 나온 책도 많지 않았지요. 그러다보니 제가 공부하며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하고 경전에 주는 감동을 전하고 싶어 <아함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아함경>의 참 뜻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내는 반응을 부리게 됐습니다."

그는 <아함경>을 번역하는데 있어 팔리어본이 아닌 한역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중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한역본을 저본으로 택한 이유는 '한역경전의 위상과 중

주제별로 묶고 색인 마련
한역 원문도 함께 실어

아함경 한권으로 묶어
영문판과 함께 낼 계획

요성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다.

"남방불교를 주로 받아들이고 연구해 온 서양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역경전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스승들이 엮어 놓은 한역경전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번 책에서는 <아함경>에 실린 2천여 개가 넘는 설법 중 중복되는 것과 후대에 덧붙여진 것은 생략했다. 또 경전을 설법의 크기만으로 분류해 놓아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기 어려웠던 경전에 비추어 전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색인을 마련했다. 번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역 원문도 실었다. 법조인 시절 <신 행정법론>과 <환경법론> 등 12권의 책을 펴내기도 했지만,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은 녹록치 않았다.

"세속의 법에 대해 쓸 때는 그 분야의 프로로서 자신감과 있었고, 실수가 있더라도 나 혼자만의 책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아마추어잖아요. 혹시 오류가 있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전하는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보니 원고 몇 번이나 다시 읽고 다듬게 되었습니다."

19살 무렵, 법사(法曹)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눈에 띈 <반아심경 강의>란 책을 몇 번이고 읽은 후



지난 2월 2일 서울 삼성동 '세종합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이상규 변호사는 "진솔하고 담백한 <아함경>을 조율한 곳에서 읽다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이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언제나 나도 이런 책을 번역해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이 대표. 그는 이 작업을 50여 년을 훌쩍 넘긴 지금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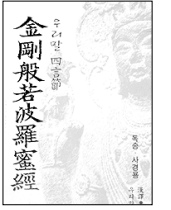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회장과 환경법학회 명예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등을 맡아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아함경>의 대표적인 경을 한 권으로 묶은 <아함경의 세상>(가제)과 영문판도 낼 계획이다.

책의 판매 수익금은 자신의 회갑과 고회 잔치를 여는 대신 찾아가곤 했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기탁하기로 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우리말 금강반야바라밀경> (동봉 스님 엮음, 운주사, 6천원) = 끈질기게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이 사경·독송용 <우리말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펴냈다. <금강경>을 우리말로 옮긴 이 책은 경구를 사언절로 엮어 놓아 읽기에 편할 뿐 아니라 경전에 담긴 뜻을 쉽게 풀었다. 또한 금강경 송경의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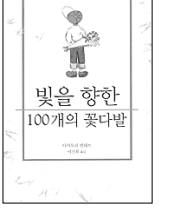
<성불로 가는 법회경> (영산 스님 엮음, 중명출판사, 1만5천원) = '경전 중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법회경>을 진주 해룡사 주지 영산 스님이 우리말로 옮기고 자세한 법어풀이를 곁들였다. '법회경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영산 스님은 '법회경을 수지독송하는 일승법화의 수행을 통해 진정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진휴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성재도 엮음, 무량사, 5천원) = 부산불교교육원장과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국장을 역임한 성재도 씨가 펴낸 불교경전 선집(選集). '지도자'와 '실천', '행복'을 큰 주제로 <선림보훈>과 <육조단경>, <백유경>, <자장경> 등의 구절을 가려 담았다.



<빛을 향한 100개의 꽃다발> (타카모리 켄테츠 지음, 이선희 옮김, 이레, 9천원) = "하루에 한 사람만이라도 기쁘게 만들어보자. 10년 뒤에는 3650명을 기쁘게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생활속의 지혜를 전하는 100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름 아버지가 그린

현대판 손오공의 모험



나의 손오공

데즈카 오사무
술 / 전 8권, 각권 4천8백원

'우주소년 아톰'과 '사파이어 왕자' 등을 통해 '일본 만화의 신'이라 불리는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 그가 중국 4대 기사의 하나인 <서유기>를 만화로 각색한 <나의 손오공>이 국내에 소개됐다.

<서유기>를 데즈카 오사무 식으로 재해석해 재치 넘치는 웃음과 고전의 깊이를 함께 담은 <나의 손오공>은 <만화왕>이라는 잡지에 1952년부터 8년간 연재됐으며, 67년에 애니메이션 '손오공의 모험'이란 제목의 TV만화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나의 손오공>은 삼장법사와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불경을 구하기 위해 마

귀들과 싸우며 천축으로 간다는 <서유기>의 기본 줄기를 담고 있지만, 상상 설정은 원작과 많이 다르다. 삼장법사 일행이 실수로 일본행 배를 타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구름을 타고 아프리카에 다녀오고 만화 주인공 뽀빠이와 산타클로스, 실존인물인 알 카포네 등 다양한 인물을 만나기도 한다. 원승이 해에 만나보는 원승이 손오공의 모험이 경쾌하게 그려져 있다.

격월간 '불교와 문화' 새단장

격월간 불교문화잡지 <불교와 문화>가 새롭게 단장했다. '단행본 같은 잡지'를 표방하며 개편을 단행한 <불교와 문화>는 각계 저명 필자를 통해 문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문화칼럼'을 신설하고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을 강화했다. 또 교리와 수행, 문화, 자연과 사람, 정보창고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해 각 주제별로 '생활인을 위한 경전읽기', '재가불자를 위한 눈높이 수행, 수행의 ABC', '마음을 밝혀주는 세계 음악 여행', '등산 길을 밝히는 사람들의'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불교정보창고'에서는 불교계 정보 구축을 위한 '한국불교관계는저총합색인'을 실어 국내외에서 출판·발표된 각종 문헌을 망라했다.

개편호인 2004년 12월호에서는 '산문을 열고 나온 불교, 세상과 소통하다'를 주제로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문화포교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특집과 테마가 있는 문화 산책의 '단청이 아름다운 사찰', 지은 스님(대구 용연사 주지)의 '지비수관 수행법이란 무엇인가', 흥승 스님(사찰음악연구원 회장)의 '사찰음악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기' 등을 볼 수 있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가장 행복한 공부', '운명을 뛰어넘는 길', '달라이 라마의 수행의 단계'.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역시아문 전화: (02)737-0695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2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개요

Table with 2 columns: 강의일시, 교육장소, 개강일시, 교과목, 지도법사, 교재, 회비, 지원자격.

문의: 사무국 ☎ (02)732-1206~8

2004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2년과정)

불교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

Table with 2 columns: 불교의식 I, 불교의식 II. Lists topics like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백일, 돌, 생일 의식과 결혼 의식'.

Table with 4 columns: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3. 개강일시: 2004년 3월 6일(토) 오후 1시(정규반) 10일(수) 오후 7시(야간반) 5일(금) 오후 3시(비리반)

4. 입학금: 없음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6.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의식·교육도량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니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지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흥복사·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점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을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통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